

1

지문에 꼭 밑줄 치면서 읽어야 하나?

지문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독서하듯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다. 지문을 읽어야 할 대상이라기 보단, 문제의 정/오답의 근거를 찾아내는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 쉬운 지문일 때는 그냥 3~4개의 적당한 표시로 해결될지 모르나, 어려운 지문일 때는 상황이 다르다. 복잡하고 정보량이 많은 지문에서 아무런 표시도 없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푼다면, 문제를 대할 때마다 지문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하는 불상사가 생긴다. 하지만 지문에 주제, 대상, 키워드, 빈출 항목, 문맥의 흐름 등적절한 표시를 해두면 선지의 정/오 판단의 근거를 찾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때 표시를 하는 시간은 독해의 속도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간단하고 신속하게 해야 효과가 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네모 표시는 추천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세모, 밑줄로만 단순화하는 것이 좋다) 독해를 정상적으로 하면서 표시를 할 때마다 머릿속에 입력하는 것은 처음엔 쉽지 않다. (지문 표시+독해 속도 유지+머리 속에 입력) 이 3박자를 갖추기 위해서는 꾸준히 연습을 해야한다. 이는 N회독은 필수다.

2

실전은 평소 문제 풀이와 다른 차원!

국어 문제를 집에서 느긋한 마음으로 푸는 것과 고도의 긴장감이 있는 실전 수능에서 푸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같은 지문이라도 어렵게 또는 쉽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 괴리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소 처음 접하는 비문학 지문과 문제를 실전처럼 시간 제한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긴장감을 갖고 푸는 것이 좋다. (단, 첫 회독 시에만 적용 / 지문 2분+문제당 1분씩을 최대치로 설정) 이렇게 문제를 푸는 습관을 가져야 실제 수능에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3

아무리 공부해도 비문학 점수는 오르지 않는다?

공부를 하지 않아도 비문학 점수가 잘 나온다?

썩썩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말이다. 다른 과목에서는 있을수도 없는 일. 수능 비문학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제시문을 주어진 시간과 상황에 맞게 얼마나 이해했느냐를 측정하는 것이다. 비문학 실력의 바탕은 독해력이다.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방면으로 책을 많이 읽은 이들은 어휘력과 글의 구조 및 문맥을 파악하는 기본 능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별도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비문학 점수가 잘 나온다. 상대적으로 독서량이 부족한 이들이 단순한 양치기 문제 풀이만으로 비문학 점수를 올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문제 푸는 대로 점수가 쑥쑥 올라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무턱대고 책을 읽을 수도 없는 노릇. 그렇다고 독해력이 부족한 이들이 비문학을 만점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영역에 비해 그 과정이 많이 어렵고 또 그 방법이 뚜렷하지 않다. 문제 풀이만으로 점수 올리는 것에 한계가 있지만 이 한계점에 도달하는 것도 쉽게 되는 것은 아니니 일단은 기출 문제 풀이에서 부족한 독해력을 메워줄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비문학도 N회독 문제 풀이는 필수이며 여기에 지문 요약과 지문 표시 연습도 병행해야 한다.

4

국어 학원 강의는 필요한가?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국어 학원 강의의 필요성은 긍정과 부정 거의 반반의 의견을 나타낸다. 이에 대해 저자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수험생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 공부법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가 없어도 공부할 동기만이라도 지속적으로 부여된다면 학원 강의는 들을만하다. 특히 의지가 부족한 이들에게는 시작부터 끝까지 강의에 의존하는 것도 괜찮다. 단, 학원 강사가 문제를 잘 푸는 것과 내가 그것을 듣고 실력이 향상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래서 강의에 100%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강의는 딱 공부의 시작과 지속성을 도와주는 것이고 자신이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어 깨달음을 얻을 때 실력이 향상한다. 자신만의 시행착오와 노하우가 생긴다면 그 때 이후의 모든 공부는 곧 점수 향상으로 이어지는 공부가 된다. 남들 다 듣는데 불안해 할 필요 없다. 학원 강의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그냥 들어라. 다만 강의 내용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 총력을 쏟아라.

5

지문 먼저? 문제 먼저?

이게 고민이 된다면, 그냥 자신이 평소에 익숙한 것을 먼저 보라. 대개 독해력이 관찮은 이들은 지문을 먼저 본 후 문제를 쪽쪽 풀어나간다. 이때 머릿속에 지문의 큰 흐름을 통해 대부분의 문제를 잘 풀어낸다. 하지만 독해력이 부족한 이들은 문제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때, 발문과 선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쓱 훑어보면서 연필로 키워드를 체크하거나 눈에 띄는 선지에 표시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 그 이상은 시간 낭비. 그리고 지문 독해를 할 시 체크한 것과 관련된 것이 나오면 선지의 정/오를 즉각 판단해야 한다.

상위권에서 고득점을 위해서는 <지문→문제>가 바람직하지만 중하위권에서 시작하는 수험생들은 <문제→지문>의 전략적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자신에게 익숙한 순서를 불필요함을 느끼면서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 어떤 순서든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6

강한 정신력을 키우자!

다른 과목의 시험과는 다르게 국어에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이다. 수능 1교시라는 긴장감과 부담감이 극에 이르는 상태에서 몇몇 어려운 지문과 문제에 부딪혀 멘탈이 무너지게 되면 이는 다른 쉬운 문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쳐 최악의 시험 결과에 이르게 한다.

낮선 시험 환경과 부담과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긴장된다. 그런데 이 모든 조건은 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험을 보는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작용한다. 쉬우면 쉬운대로 신속하고 실수 없이 풀어내면 되고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최선을 다해 포기하지 않고 해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풀어내야 한다.

어렵고 낯선 것에서 멘탈이 무너져 그 가운데 풀 수 있는 것도 못 푸느냐, 그래도 풀 수 있는 것만은 건져내느냐는 하늘과 땅차이이다. 평소에 어려운 문제를 대할 때, 짜증내고 부정적 감정을 갖고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놓치지 않고 챙기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정립해 놓을 필요가 있다.

7

물어보고 해결하라, 적극적으로지 않으면 점수는 오르지 않는다!

공부하면서 모르는 것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의문은 N회독을 할수록 더 많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의 폭 넓어짐에 따라 더 많은 의문점이 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의문점 없이 진도가 잘 나가지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해야 한다. 대충대충 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교재의 해설을 통해 의문이 생기면 물어보아라. 국어는 모든 영역이 유기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수험생의 의문 1개는 단편적인 1개가 아니다. 의문 1개를 해결함으로써 앞으로 더 발생할 다수의 의문을 해결할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의문은 반드시 해결하고 지나가야 한다.

교재 해설에 대한 궁금증이라면 멀리서 물어볼 것도 없이, 교재 사이트에서 의문을 남기고 답을 얻을 수 있다. 의문 1개를 온전하게 해결할 때마다 자신의 국어 점수가 아주 조금씩 오를 것임을 명심하자.

8

지문에 꼭 밑줄 치면서 읽어야 하나?

지문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독서하듯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다. 지문을 읽어야 할 대상이라기 보단, 문제의 정/오답의 근거를 찾아내는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 쉬운 지문일 때는 그냥 3~4개의 적당한 표시로 해결될지 모르나, 어려운 지문일 때는 상황이 다르다. 복잡하고 정보량이 많은 지문에서 아무런 표시도 없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푼다면, 문제를 대할 때마다 지문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하는 불상사가 생긴다. 하지만 지문에 주체, 대상, 키워드, 빈출 항목, 문맥의 흐름 등적절한 표시를 해두면 선지의 정/오 판단의 근거를 찾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때 표시를 하는 시간은 독해의 속도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간단하고 신속하게 해야 효과가 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네모 표시는 추천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세모, 밑줄로만 단순화하는 것이 좋다) 독해를 정상적으로 하면서 표시를 할 때마다 머릿속에 입력하는 것은 처음엔 쉽지 않다. (지문 표시+독해 속도 유지+머리 속에 입력) 이 3박자를 갖추기 위해서는 꾸준히 연습을 해야한다. 이는 N회독은 필수다.

9

처음 만나는 선지에 답의 확신이 들 경우!

이것은 시간 관리가 생명인 국어 시험에서 한번 짚은 해보았을 고민이다. 대개 쿨한 성격의 수험생들은 그냥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완벽주의적 성격의 수험생들은 모두 다 검토한다. 빠르게 정답을 확신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시간을 절약하여 남들보다 문제 푸는 속도가 빠르다는 심리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선지를 보지 않은 찝찝함이 남을 수 있고 정답이라고 확신한 것이 착각을 해서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완벽주의적 수험생들은 모든 선지를 다 꼼꼼히 검토하여 온전하게 문제를 풀었다는 심리적 편안함은 있겠지만 시간 절약의 측면에서는 남들보다 아무런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어느 방법이 누구에게나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답의 가능성을 약 70%이상 확신한 선지가 있다면 거기서 멈추고 적절한 표시를 한 뒤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한다. 우리가 평소에 100%확신하는 것도 고도의 긴장감이 있는 실전 시험에서는 그 확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판단이다. 국어 시험에서는 킬러 문제에 최대한 풀이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고득점의 관건이기에 문제를 모두 푼 뒤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보지 못한 선지를 검토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

10

EBS 봐야해?

EBS 말도 탈도 많지만, 남들 다 보고 수능에 연계된다고 하니, 안 보자니 불안하다면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봐라. 수험생활에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공부를 방해하는 최악의 요소이다. 불안을 이겨낼 자신이 없이 EBS의 효율성과 필요성의 정도에 상관없이 보는 것이 맞다. 단 기출을 메인 학습 도구로 삼고 EBS는 보조적인 학습 재료로 삼고 1회독 정도로 마쳐야 한다. 단 교재를 버리지 말고 수능 약 2달 전부터 틀린 문제는 꼭 다시 살펴봐야 한다.

틀린 문제를 보지 않고 놔두면 EBS를 50%밖에 공부하지 못한 셈이다. 말도 탈도 많은 EBS이지만 이미 공부를 했다면 그래도 50%만 내 것으로 만들고 끝내기엔 너무 낭비가 된다. 틀린 문제를 다시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최소 70%이상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재학생들은 학교에서 EBS를 대부분 보게 되는데 이왕 봐야만 하는 EBS라면 학교 수업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EBS에 조금 더 신경을 써보자. 학교 수업 시간에 자신의 다른 문제집을 공부하는 건 최악의 낭비 중 낭비이다.

11

답이 기억나는데 N회독을 꼭 해야 하나?

객관식에서 답을 찾기 위한 공부는 1회독으로 끝난다. 2회독부터는 답을 찾는 공부라 아니다. 지문을 요약하고 선지의 정/오 답 근거를 찾아내는 주관식 공부가 되어야 한다. 답을 알아도 지문에서 그 근거를 신속하게 찾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이 때 N회독을 위해서는 새로운 문제집이 필요하다. 문제집만을 별도로 구매 혹은 출력해서 보자. 문제의 답을 찾는 공부는 국어 공부에 50%도 채 되지 않음을 명심하자. 우리는 어떤 지식을 내 것을 삼기위해 그것을 암기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 이해하고 적용한다. 기출도 마찬가지로 단 한 번의 학습으로 모든 것을 알기에는 불가능하다.

12

많이 틀리면 공부하기 싫어진다?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자인 나도 그렇고 누구나 다 그렇다. 여기에서 책을 덮고 공부를 며칠 쉬는 이들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자신의 부족함을 계속 정리하고 이에 대한 노하우를 쌓기 위해 노력한다. 당연히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누군가들은 분명 소수에 해당하고 그 올리기 힘든 국어 점수를 쑥쑥 올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이들이다. 안정적인 고득점을 원할수록 익숙하고 쉬운 문제보다 낯설고 어려운 문제에 애착을 가져야 한다.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비문학도 그렇다.

13

집념과 끈기!

낮설고 복잡하고 어려운 지문과 문제라도 외국어도 아니고, 어차피 한국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한글로 되어 있다. 거의 비슷한 국어 실력이라도 어려운 것에 당황하면서 실력만큼만 풀어내는 이가 있는 반면, 어려운 것에 맞서 모두 꼭 풀어내겠다는 집념과 끈기가 있다면 실력 이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가 있다. 집념과 끈기는 다른 과목의 공부해도 기본 바탕이 되지만 국어 비문학을 공부하는데 있어 더욱 더 중요한 덕목이다.

14

기출의 중요성

국어 공부에서 기출은 진리이다. 다른 과목과는 달리 국어는 기출처럼 오류 없는 정선된 문제의 질을 EBS를 포함한 사설에서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출의 문제 패턴이 지속적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공부 방향을 가능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그래서 기출 하나로 모든 수험 강의와 교재가 그 방향을 잡고 있다.

이런 기출은 공부 시작부터 수능 날까지 함께 가야한다. 기출이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조금씩이라도 천천히 꾸준히 손에서 놓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국어 공부에 중심이자 진리가 되는 기출을 단 한번만 보고 만다면 기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개념 공부 끝내고 기출은 최대한 나중에 정확한 실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본다고 최대한 아끼는 이들이 있는데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기출은 실력과 위치 점검용이 아니라, 하나하나 모조리 파헤쳐야 할 대상이다. 실력과 위치 점검은 직접 치르는 6월, 9월 모의고사만으로도 충분하다.

15

지문 요약의 중요성

비문학을 항상 시킬만한 도구가 몇 안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출 지문을 요약하는 것이다. 다른 문제집이나 자료를 별도로 구할 필요가 없이, 바로 이 문제집에 있는 지문을 요약하면 된다. 1회독은 스피드하게 끝내야 하기 때문에 천천히 꼼꼼히 공부하게 되는 2회독부터 문제를 분석하기 전에 지문 요약을 하면 된다. 문단별로 핵심 키워드와 포인트를 뽑아내, 전체 흐름을 파악하면 된다. 이런 요약을 통해, 문장 및 문단에서 중요도 판단, 전체 흐름을 파악, 선지의 정/오 판단 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지문 요약도 2~3회 해야 할 정도로 문제 풀이만큼이나 중요하니 매일 매일 1지문씩이라도 요약하는 습관을 갖자.

16

틀린 문제는 또 틀리게 되어 있다

틀린 문제는 틀리고 또 틀리고! 누구나 공부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가져온 학습 태도, 방법, 습관, 사고방식, 고정관념, 지식 등은 잘 바뀌지 않는다. 자주 틀리는 문제의 분야나 유형도 그것을 해결해보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실천 행동이 없거나 부족하면 원래 있던 습관처럼 또 그렇게 틀리게 된다.

그래서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어 보는 일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보완하는 첫걸음이다. 귀찮더라도 점수를 올리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 하고 싶은 것만 하다가는 맞는 문제는 계속 맞고 틀리는 문제는 계속 틀리게 될 것이다. 오답 노트에는 지문명, 해당 문제 유형, 부족한 지식, 틀린 이유 등을 정리하면 된다.

17

실수도 실력

실수도 실력이라는 말은 그리 낮설지 않은 말이다. 중요한 것은 실수가 실력이든 실력이 아니든 수능에서 아주 가벼운 실수로 1~2문제 놓친다면 내년을 기약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전에서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 뚜렷한 방법은 없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평소에 훈련해두어야 한다. 평소 국어 공부하면서 자주 하는 실수를 점검해보고 조금 더 차분하고 꼼꼼한 마음을 갖는 연습을 한다면 실수는 줄어든 것이다.

18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지만...

고3이면 거의 매달 모의고사를 보게 된다. 이 때 실전의 마음가짐으로 시험에 임해야한다. 수능은 낯선 환경에서 고도의 긴장감을 가진 채 보는 시험인데 이를 연습해볼 만한 상황이 그리 많지 않다. 학교에서 보는 모의고사를 통해 이를 충분히 연습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수험생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점수. 모의고사 점수에 연연하지 말라고 하지만 연연할 수밖에 없는 게 수험생의 나약한 마음이다. 모의고사에서 체크해봐야 할 것은 점수나 등급보다는 국어 영역별 공부의 양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1~3달 공부로 국어 점수는 쉽게 오르지 않는다. 모의고사 점수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수능을 향해 꾸준히 치지 말고 달려가자.

19

양치기 문제 풀이의 득

기출 문제 1회분을 3회 보는 것은 다른 문제 5회분을 1회보는 것보다 낫다. 수험생들은 기본적으로 문제 풀이를 좋아한다. 즉 각적으로 채점을 하고 언제든지 자신의 지식 정도나 실력을 체크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집이 쌓여갈수록 희열과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에 비례해 국어 실력이 쌓여 점수도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문제 풀이는 계속해서 자신의 실력과 위치만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지, 실력을 쌓는 것은 아니다. 특히나 국어는 양치기는 금물, 질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 지문을 보더라도 제대로 공부하자.

20

그냥 찍어야 할 상황이 온다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찍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라.

- 지문에 첫 번째 문제와 3점짜리 문제는 ③,④,⑤중에서 찍기
- 선지의 문장 길이가 3,4번째 정도 되는 것 찍기

21

어떤 영역을 먼저 풀까

자신 있는 영역을 먼저, 상대적으로 많이 틀리는 영역을 나중에 푸는 것이 좋다. 자신 있는 영역을 먼저 신속하게 풀어 놓아야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그 다음을 풀 수 있다. 그리고 자신 있는 영역을 늦게 풀어 시간 없어 찍는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시험지의 1번부터 문제를 풀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시험지 순서대로 푸는 것을 권한다.